2011년 기업 수익성, 안정성 악화

채원영 연구원

2011년 중 국내 법인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수익성과 안정성은 전년대비 악화되었음.

- 매출액 증가율은 12.2%로 2010년 15.3%에 비해 3.1%p 감소하여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음.
  - 총자산은 전년대비 9.6%, 유형자산은 9.2%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
  - 제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3.6% 증가하여 2010년 18.5%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유로존 위기 등에 따른 수출 및 내수부진이 심화되었기 때문임.
  - 제조업 중 비중이 가장 큰 전기전자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9.6%에서 2011년 2.3%로 크게 감소하였음.
-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.5%로 2010년 5.3%에 비해 0.8%p 하락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.
  -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.7%로 2010년 4.9%에 비해 1.2%p 하락하여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.
  -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은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,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영업이익 비중 축소, 영업외수지 적자폭 증가 등임.
- 차입금의존도는 32.2%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부채비율은 152.7%로 2010년 150.1%에 비해 2.6%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이 악화되었음.

2012년 국내 법인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소비, 재화수출 등이 2011년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.

- 2011년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.3% 증가하였던 반면 2012년에는 1.7%[1)]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재화수출은 10.5% 증가하였던 반면 2012년에는 3.4%[1)]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됨.

(2011년 기업경영분석, 한국은행, 10/12)

1) 한국은행 전망치임.